충장축제 연일 수만 인파 이유 있다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인 충장축제에 참가하는 시민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는 밤이 되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관람객이 모여들고 있다. 가족 단위로, 연인끼리, 친구끼리 이곳 저곳 옮겨가면서 저마다 가을 밤 추억을 만들고 있다. 축제가 접근성이 좋은 도심에서 치러지는데다 평소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문화공연까지 축제 프로그램의 중심 축으로 이뤄져 중·장년 층은 물론 놀이문화에 목이 말랐던 젊은이들까지 대거 충장로로, 금남로로 모여들고 있다.

"우리도 한때는 청춘남녀"

고달픈 중·장년들의 추억찾기

지금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중·장년층에게도 가을이면 편지를 쓰고, 슬픈 가요 한 곡에 눈물을 흘렸던 '청춘시절'이 있었다.

일상에 지친 중·장년 층이 퇴근 후 축제가 열리는 충장로 일대로 모여들고 있다. 그들에게 가을밤 열리는 충장축제는 '추억으로 가는 열차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1970~80년대 생활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추억의 전시관, 매일 밤 열리는 '추억의 동창회', 특설무대에서 잔잔히 울려 퍼지는 '추억의 가요'. 이 모든 게 반복된 일상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중·장년 남성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다.

도심서 열리는 신명 난장

놀이문화 불모지 광주 젊은이들 몰려

영화나 연극관람 이외에는 이렇다할 문화 공연이 수도권에 비해 턱없이 적은 광주지역 젊은이들에겐 충장축제가 하나의 커다란 놀이 문화로 다가온다.

축제 기간 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예술의 거리 등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농악무와 판소리, 사물놀이, 진도 아리랑, 기생춤, 살풀이춤 등 우리 전통 공연이 계속된다.

우리 전통공연 이외도 인디언 복장을 한 외국인들이 펼치는 아프리카 음악 공연, 밸리 댄스, 콜롬비아 라틴댄스, 중국 전통무용, 우크라이나 팝 재즈 클래식 등 다양한 외국 공연도 광주 도심 일원에서 이어지고 있다. 매사에 적극적인 젊은이라면 인디언 복장을 한 외국인이 들려주는 음악을 듣고 난 뒤 기념촬영을 할 수도 있다.

지역문화그룹 공연인 마술쇼와 마임 쇼, 뮤지컬, 거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축제 기간 계속돼 초·중·고생은 물론 대학생들에게도 좋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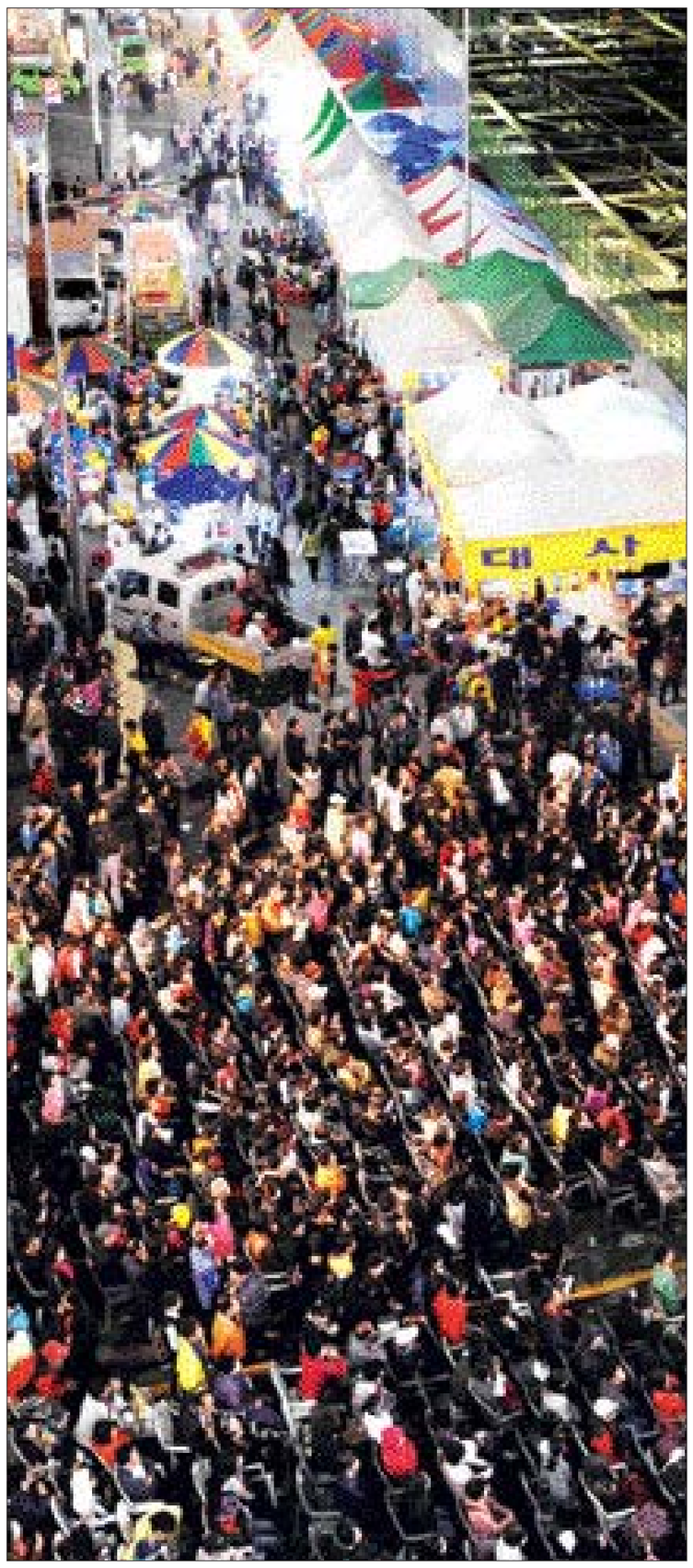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

구청 자리 깔고 상인들도 한마음 똘똘

충장축제 개막 사흘째인 15일 광주시 동구와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현재 충장축제 관람객 수는 9만 명을 넘어섰다. 축제 기간 동안 하루 평균 3만 명 이상이 다녀간 셈이다.

올해 충장축제는 과거처럼 관(동구)이 주민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과거와는 달리 주민들의 축제 참여도가 높아진 것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 동구 관계자는 "축제기간 동안 충장로 대부분의 상점에서 물품을 할인하는 '충장로 스트리트 세일'은 물론 판소리 공연에도 주민들이 직접 나서면서 축제가 한 층 업그레이드 됐다"며 "충장축제의 성공은 주민과 구청, 지역 상인 모두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충장축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관람객도 늘고 있어 기쁘다"며 "축제가 끝나는 날까지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



충장축제 사흘째인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가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로 크게 붐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한-EU FTA 협정문 가서명

냉동삼겹살 10년 걸쳐 관세 철폐

낙농·유제품 양허기간 10년으로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크게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이 이뤄졌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슈턴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5일 오전(현지시간)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EU 집행위 본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번역작업이 완료된 협정문에 내년 1~2월께 정식서명하고 각자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발효시킨다는 목표 아래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는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피해 분야다. FTA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다만 한국-미국 FTA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협상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농산물 분야=한-EU FTA 농산물 분야의 최대 관심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지금도 EU에서 수입하는 농산물 중 돼지고기 비중이 24.4%(2008년 기준·4억832만달러)에 달한다. 그중 냉동삼겹살이 2억8천만달러다.

냉동삼겹살(관세율 25%)과 냉장삼겹살(22.5%)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장기 관세 폐지 품목으로 돌려 국내 농가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완화한 셈이다.

또 냉장삼겹살, 목살의 경우 수입이 급증할 때 '농산물 세이프가드(ASG)'를 설정해 관세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ASG란 농산물 수입이 급증해 연도별로 미리 정해놓은 물량 이상이 수입될 경우 초과분에 대해 양허 이전 수준의 고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ASG 대상 품목은 냉장삼겹살 외에도 보리(맥주맥.맥아), 감자전분, 변성전분, 사과, 인삼, 쇠고기, 발효주정, 설탕 등 모두 9개다.

수입액 3위인 낙농·유제품은 양허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장기화하는 대신 무관세로 의무 수입해야하는 무관세 물량(TRQ)을 설정했다. TRQ는 매년 3%씩 복리 방식으로 관세 폐지 때까지 증가하게 된다.

사과, 배, 오렌지는 한-미 FTA와 같은 수준으로 합의했다. 특히 오렌지(50%), 포도(45%) 등은 같은 북반구에 속해 생산·유통 기간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 우리 측 출하기 땐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감축하기로 했다.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추, 마늘, 양파, 대두, 보리, 감자, 인삼, 제주산 감귤(온주 밀감), 흑설탕 등 9개 주요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

◇수산물 분야=수산물 쪽에선 냉동오징어(24%), 냉동민어(57%), 냉동명태(30%)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냉동고등어(10%.12년), 냉동볼락(10%.10년) 등은 양허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했고 골뱅이는 5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했다.

반대로 우리 쪽 주요 수출품인 다랑어류(20~22%), 오징어(6%), 조제 수산물(22%)는 3년 이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전, 나주혁신도시 부지매입 협상단 파견"

최인기의원

한국전력공사가 연내 부지 매입을 위해 협상단을 토지공사 추진사업단과 나주 혁신도시 건설추진단에 파견키로 했다고 국회 혁신도시 건설촉진국회의원모임 대표인 민주당 최인기 의원이 1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김쌍수 한전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경영사정이 어렵다면 부지 매입계약금으로 수십억원을 걸고서라도 기필코 서면으로 부지계약을 연말까지 완료해줄 것"을 촉구하자 김 사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날 전화 통화에서 김 사장은 "당장 부지매입 협상단을 토지공사 추진사업단과 나주 혁신도시건설추진단에 파견해 부지매입협상에 착수토록 하겠다" 부지매입단가 인하를 위해 최 의원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

최 의원은 이날 또 정정길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되고 부지매입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는 한국전력을 비롯한 이전대상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세종특별도시건설 변화 움직임에 때맞춰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부지매입, 청사설계 공모 등 혁신도시로의 이전작업을 미루고 있다"며 "대통령께 직접 건의·보고해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건설 추진을 천명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